

95.6.16

□ 금통학원 이사장 살해 김성복씨 3차공판

김씨 모친·부인 눈물로 선처호소

김중태 기자

금통학원 이사장인 아버지 김형진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맏아들 성복(41·전 시대 교수)씨에 대한 1심 3차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법원 319호 법정.

김씨의 가족 등 30여명이 방청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의 어머니 김아무개(63)씨와 부인 윤아무개(40)씨가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와 “평소 고인이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강요하는 과정에서 장남인 성복씨와 갈등이 있었다”며 “평소 세간의 평가와 실제 행동이 다른 아버지의 이중적 모습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김씨의 범행동기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먼저 증언대에 선 어머니 김씨는 “남편은 평소 여러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복자식을 두는 등 사생활이 문란했으며 가족들을 학대해 가족 모두 그를 무서워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남편에게 왼쪽 귀의 고막이 터지도록 맞는 등 가정생활이 고통스러워 자살도 시도했지만 성복이에게 발견돼 살아난 적도 있었다”며 “장남으로서 의무를 강요당하던 성복이는 가족과 남편 사이에서 묵묵히 중재 역할을 해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갈등이 쌓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

진술 내내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던 김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변호인의 신문에는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통곡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이어 증언에 나선 부인 윤씨는 “결혼 전에 가부장적이고 군주적인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불쌍하다는 남편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기분이 나쁘면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시아버지를 가족 모두 두려워하면서 피해왔다”고 울먹였다. 윤씨는 또 “아이들은 아직도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로부터 받은 편지를 늘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진술했다.